

Press Release

Kukje Gallery

Kwon Young-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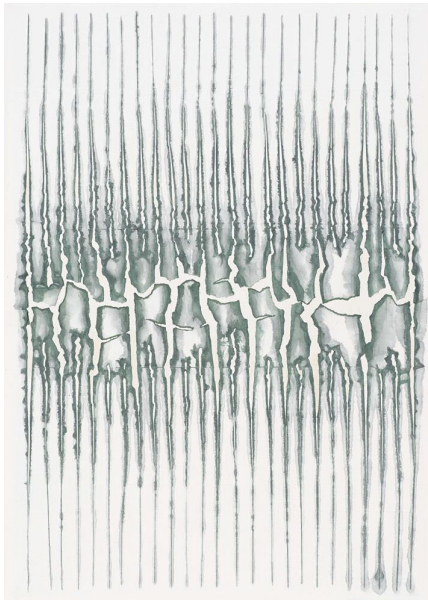
권영우(1926-2013)

2015. 10. 30 – 12. 6

국제갤러리 1관 & 2관 (K1 & K2)

기자간담회: 2015. 10. 30, 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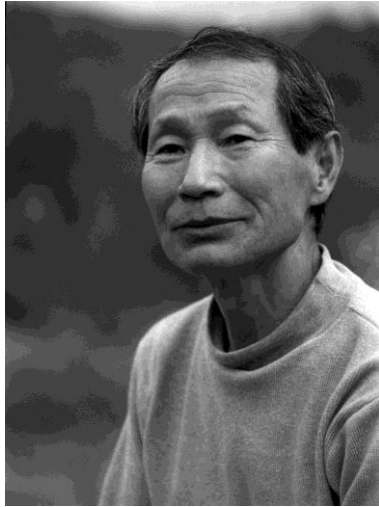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는 10 월 30 일부터 12 월 6 일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단색화 작가인 권영우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권영우의 첫 국제갤러리 개인전으로 작가 고유의 조형언어, 곧 평면의 한계를 전통적 매체인 한지를 통해 실험적인 방식으로 구현한 추상적인 표현의 작품들 30 여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전시는 권영우의 작품들 중 1980 년대에 제작된 채색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권영우는 단색화 작가들 중에서도 한국화의 핵심요소인 먹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한국적 전통회화의 추상적 표현 가능성을 탐구해왔고, 한지(韓紙) 또한 작품 제작의 주요 매체로 발전시켰다. 그는 그리는 행위를 배제하는 대신 종이를 자르고, 찢고, 뚫고, 붙이는 등 신체성이 강조된 평면작업을 통해 독자적인 회화적 제스처를 심도 있게 전개하였다. 특히 그의 작품은 평평한 표면 위에 여러 겹으로 붙여진 종이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종래의 다양한 방법론적 기법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조형적인 입체감과 리듬감을 지닌 이미지 상의 운율을 형성한다. 이를 살펴보자면 그의 작품에서는 신체적인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찢겨지고 굵힌 종이 결 위로 다시 종이 결이 파편화되어 겹쳐지면서 그 사이에 먹과 푸른 잉크 얼룩이 물들고 채워지는 기법이 두드러진다. 작가는 먹이 흘러내리고, 찍히고, 종이의 표면에 스며드는 우연적 현상을 반복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는 향후 그만의 독창적인 회화 언어가 되었다. 이렇듯 작가는 다년간 한지와 먹을 기반으로 한 회화의 형식을 실험적으로 발전시키며 한국적이면서 독자적인 회화적 사유를 담은 담백하면서도 역동적인 작품을 추구하였다.

KUKJE GALLERY



권영우 작가

© 서울시립미술관, 국제갤러리 제공

한국 현대회화를 개척한 세대에 속하는 권영우는 1926 년에 태어나 1946 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1 기로 입학하여 박노수, 서세옥, 장운상, 박세원과 함께 수학하였고, 1957 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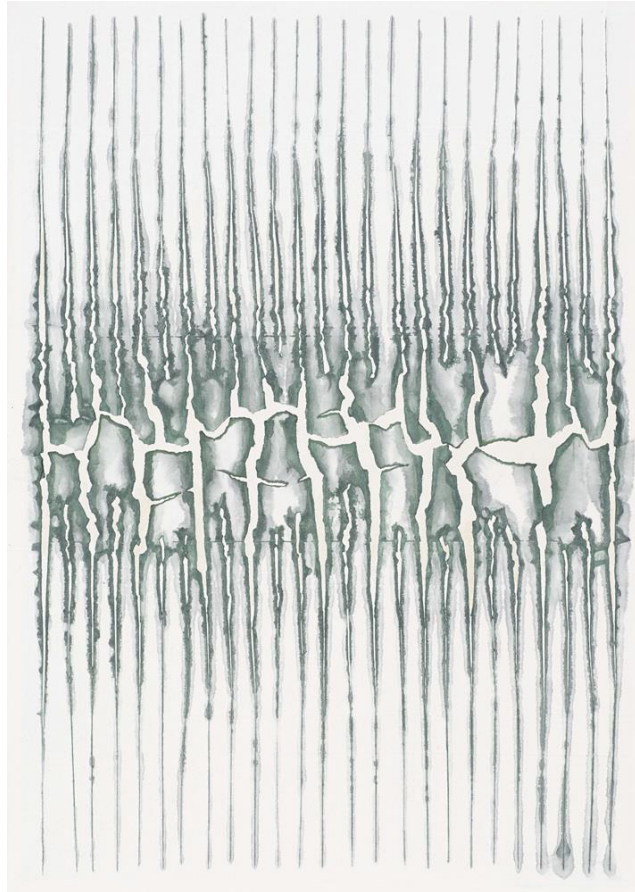
주요 해외 전시 경력으로는 1965 년 제 8 회 도쿄비엔날레, 1973 년 제 12 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1975 년 동경화랑 《한국 5 인의 작가, 다섯 가지의 흰색》전, 가장 근래에는 2015 년 제 56 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병행전시인 '단색화전'이 있다. 1970 년대 후반 프랑스로 이주하여 작품에 전념한 작가는 1976 년 파리 자크 마술 화랑 개인전을 시작으로 1990 년 호암미술관, 1998 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07 년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1958 년 <바닷가의 환상>과 1959 년 <섬으로 가는 길>로 문화교육부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1998 년 1998 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01 년에는 은관문화훈장, 2003 년 허백련상을 수여 받았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런던 대영박물관 등 유수의 기관 및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작가는 2013 년 서울에서 작고하였다.

Contact_ Communications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제

1984

한지에 과슈,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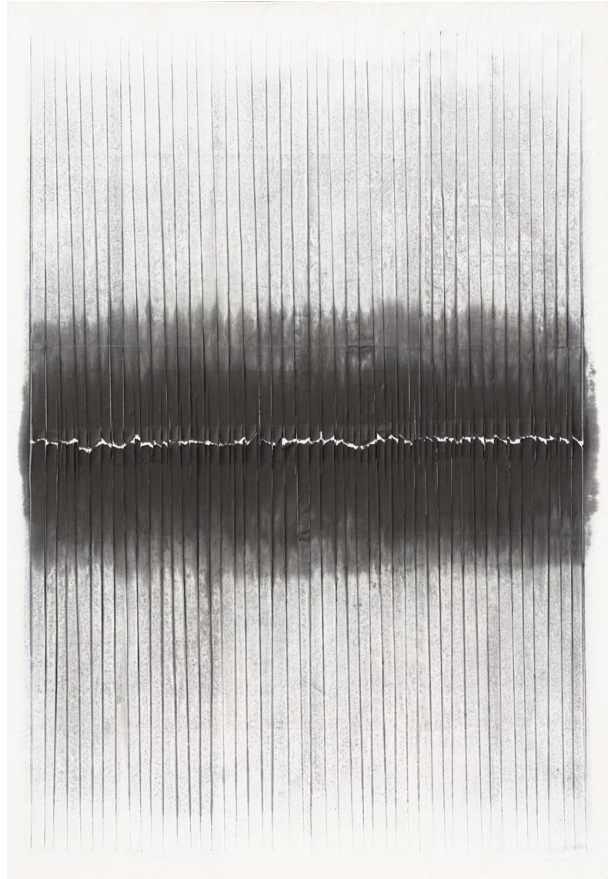
165 x 116 cm

©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무제

1984

한지에 과슈,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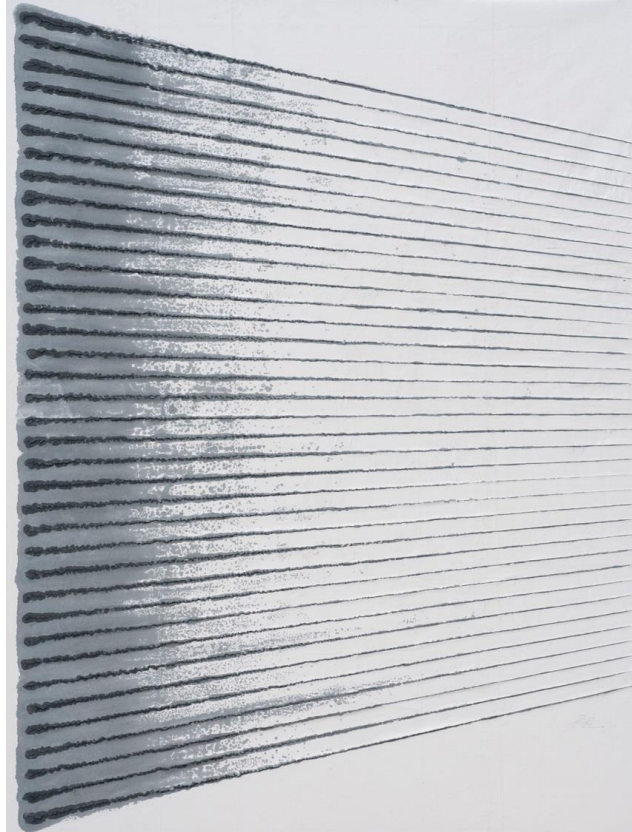
162 x 130 cm

©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무제

1987

한지에 과슈, 먹

224 x 170 cm

©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